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김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한성민 Research Associate
sungmin0108.han@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6월 첫째 주

미국 노동시장: 수요 안정 지속, 낮은 고용 증가는 주로 공급에서 기인

- 최근 미국 노동시장은 수요는 점차 안정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자리 증가는 낮은 상황. 이는 주로 反이민 정책과 인구 고령화의 공급측 변화에서 기인
- 그에 따라 Breakeven 고용 증가는 '0'에 수렴하나, 이를 노동시장 여건의 악화로 판단하지 않음. 다소 제약적 통화정책은 당사 12월 금리 인하 전망의 근거

최근 미국 노동시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점은 고용 수요의 둔화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고, 단기 파견 서비스(temporary help service) 고용이 반등하고 제조업의 노동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동시장 회복 초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반면, 고용 증가가 낮고 그마저도 의료, 사회서비스 등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업자들의 취업 확률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노동시장 참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는 정책 금리가 중립 수준을 다소 상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SF Fed의 주간 노동시장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 범위에 있다는 점에서, 낮은 고용 증가는 노동 수요 측면보다는 주로 反이민 정책과 인구 고령화라는 공급 측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Brookings에 따르면, '23~'24년 미국의 순이민자 유입은 각각 340만 명과 200만 명에 달했으나, '25년과 '26년에도 소폭의 (-)로 추정된다. 또한,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에서 55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참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이후 조기 은퇴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55세 이상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19년 40.2%에서 '25년 38.1%, '26년 1~4월에는 37.2%까지 하락했다. 반면, 16~24세와 25~54세 연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민 축소와 고령화를 낮은 고용 증가율의 원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Christopher Waller 이사는 "이제는 고용 증가가 '0'에 가까워도 침체가 아닌 정상상태"라고 발언했으며, SF Fed의 Mary Daly 총재도 "노동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좋은 지점에서 안정(settle)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노동 공급 둔화는 잠재성장률과 소비여력 둔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Fed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노동 공급의 둔화로 '26년 성장률은 전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존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1% 증반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실질 소비는 일자리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부의 효과, 은퇴 연령층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사실상 '0'에 가깝더라도 이는 노동시장의 여건 악화보다는 反이민 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되는 현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중립 수준을 상회하는 정책금리는 노동 수요를 다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가 급등과 관세 인상의 영향이 해소된 이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한다는 당사 전망(올해 12월)의 주된 근거이기도 하다.

미국 4월 고용,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4월 고용지표는 금융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보다 민간 고용이 12.3만 명 증가하여, 지난 12개월의 평균 증감(4.3만)을 크게 상회했다는 점이다. 또한, 3월의 JOLTs나 민간(Indeed) 부문의 조사에서 노동 수요가 점차 안정되는 징후도 나타났다. 실제로 3월 Job Openings는 전월 대비 -5.6만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Indeed의 Job postings는 3월 이후 완전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줄곧 감소했던 주당 노동시간도 '25년 이후 34.3시간 내외를 머문 가운데, 제조업의 노동시간은 4월에는 잔업이 증가하며 40.4시간을 기록했다. 아울러, 단기 파견 고용(temporary help service)도 지난해 말 이후의 회복세를 지속했다. 이처럼 잔업이 증가하고, 단기 파견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노동시장 회복 초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회복 초기에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우려하여 고용 확대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다만, 4월 민간 고용의 증가 중에서 도소매 및 창고운송이 5.8만 명으로 47%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개선의 지속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미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관세 충격 이후 줄곧 둔화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4월 소매부문의 고용 증가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소매판매의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AI 투자확대가 도매 및 운송 부문의 고용 증가를 이끌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도소매 및 창고운송의 6개월과 12개월 고용 증가는 월평균 0.7만 명과 -5.7만 명에 그친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 민간 부문의 고용 증가가 거의 대부분 의료 및 사회서비스(healthcare and social assistance)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난 2년간 월평균 4.9만 명의 민간 고용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6.4만 명이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최근 3개월 고용 증가의 98%가 해당 부문에서 발생했고, 4월의 경우에도 도소매창고운송 부문에서의 고용 증가를 제외하면 83.1%에 달했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는 Indeed의 채용 공고 중에서 AI 활용능력을 언급(AI terms)한 비중이 4.9%에 달했다는 사실은 나머지 분야의 노동 수요는 정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이민 정책과 인구 고령화가 노동 공급 둔화로 이어지며, breakeven 고용 증가율 크게 하락

일견 미국의 노동시장은 일자리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고, 그나마도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인 4.3~4.4%에 머물고 San Francisco Fed가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노동시장 스트레스 지수(Weekly Labor Market Stress Indicator)는 4년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일자리 증가는 크지 않지만,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공급 측면에서 미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당사가 수 차례 언급했던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의 영향이 크다. 미국 국가안보국(homeland security)에 따르면, '23년과 '24년 각각 247.5만 명과 213.5만 명에 달했던 서남부 국경의 월경자 숫자(Southwest Land Border Encounters)는 '25년에는 43.4만 명, '26년에는 7.6만 명으로 급감했다(회계연도 기준). 이는 '25년 이후 미국으로의 비합법 이민자 유입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한편, 미국의 인구 고령화도 노동 공급 둔화의 요인이다. '01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16세 이상 인구에서 '55세 이상과 '65세 이상의 비중은 각각 27.3%와 15.7%였으나, '26년 4월에는 각각 38.2%와 23.5%까지 상승했다(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중은 '24년 기준 17.9%). 물론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린 편이나, 미국도 고령화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순이민의 축소(또는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미국 노동시장의 breakeven 고용 증가율(잠재 노동력 증가분을 흡수하면서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달 추가되어야 하는 일자리)을 크게 낮추었다. 실제로 지난 6월 보고서에서 Fed(board of Governors)는 '26년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이 월간으로 1만 명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Labor force growth, breakeven employment and potential GDP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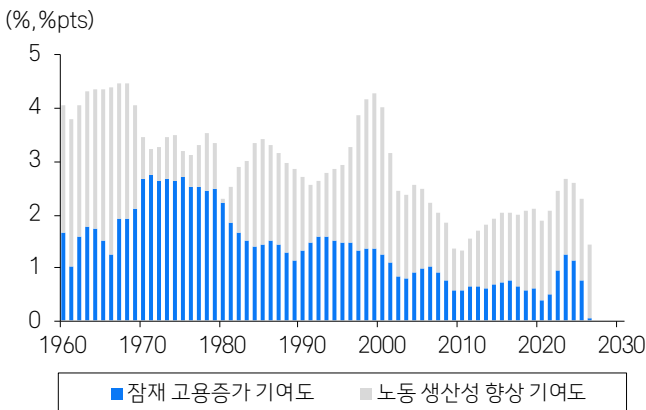
노동공급 축소의 함의: 잠재 성장률에는 부정적이거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요약하면 최근 미국의 낮은 고용 증가율은 전반적인 노동 수요는 둔화 속도가 완만해지는 상황에서 反이민 정책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도 부합한다. '26년 4월 민간 부문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3.6%로 '25년의 4.0%보다 낮았고, 최근 3개월의 연율화 상승률은 3.1%에 그쳤다. 또한,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임금상승률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part-time 고용이 증가하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노동 공급 둔화의 거시경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둔화이다. 기본적으로 한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 그리고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노동 공급의 축소는 직접적으로 잠재 성장률의 둔화로 직결된다. 앞서 언급했던 Fed의 보고서에서도 노동 공급의 둔화로 '26년 성장률은 전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존할 것이며, 그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1% 중반으로 추정했다. 둘째는 소비에의 악영향 우려이다. 고용 증가율의 둔화는 소비의 원천인 전체 임금 소득의 둔화로 직결된다. 특히, '21~'24년 중 급증한 이민자들은 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고용되어 소비 성향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23년 이후 미국의 실질소비 지출을 일자리 증가와 실질임금 증가율로 분해하면, 일자리보다는 실질 임금에 좌우되었다. 또한, 소비지출 중 두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크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1) 추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2) 인구 고령화 및 은퇴 세대의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은퇴 세대의 소비는 임금 소득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둔감하고 소비 구성(basket)에서 주거비와 내구재의 비중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2년간 미국의 개인 소비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상품의 비중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중 일부는 고령화 진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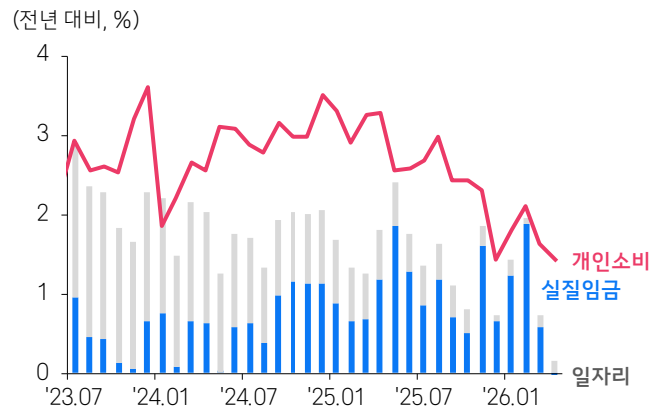
(정성태)

잠재 성장률 분해: 노동공급 축소로 잠재성장률 둔화 가능성



자료: Board of Governors, 삼성증권

미국 실질 개인소비의 결정 요인 분해



자료: BLS, 삼성증권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5월 ISM 제조업(1일)과 서비스업 지수(3일)와 고용 동향(5일) 등이 발표 예정이다. 5월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는 각각 53.2와 53.7로 예상되어, 대체로 4월의 52.7과 53.6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란 사태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90~10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여건의 완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충격이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5월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9만명으로 4월의 11.5만명에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은 7만명 내외로 전망한다. 다만, 이러한 둔화는 4월의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고용 증가세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여전히 breakeven-payroll 3~5만명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4.3%로 예상되며, 시간당 임금 또한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4%로 물가목표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럽: 다음 주에는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2일) 발표 예정이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3%를 기록해 4월(3.0%)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물가 또한 2.4%로 기록해 4월(2.2%) 대비 높아질 전망이다. 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공급 충격으로 인해 유로존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은 적어도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ECB는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대응해 6월 금리 인상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로존 임금상승률이 여전히 2~2.5%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은 연내 1~2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다음 주에는 국가통계국 및 RatingDog의 5월 PMI(5월 31~3일)가 예정되어 있다. 5월 제조업 PMI는 국가통계국 50.0, RatingDog 51.3으로 전월에 비해 둔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4월은 각각 50.3과 52.2). 5월 들어 중국의 주요 20개 항구의 물동량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여, 전쟁의 여파로 대외수요가 둔화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주택 판매를 감안할 때, 중국 내수도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5월 국가통계국의 비제조업 PMI는 49.5(4월 49.4), RatingDog의 서비스업 PMI는 52.2(4월 52.6)로 예상된다. 건설업 부진 지속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중국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 다음 주에는 5월 수출(6월 1일)과 5월 소비자물가(6월 2일)가 예정되어 있다. 당사는 5월 한국 수출이 5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consensus는 50.7%). 글로벌 AI 투자 붐이 지속되며, 반도체 가격과 물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화학 등은 고유가, 관세 등 부정적인 요인들로 부진하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로는 2.9%를 예상한다(consensus는 0.3%와 3.0%). 품목별로는 휘발유, 경유 등은 전월에 비해 2% 내외 상승했으나, 쌀,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소매판매 증가가 주로 백화점, 전문점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부문에서 물가압력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미-이란 간 휴전 연장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이 지연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긍정적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 WTI 기준 유가가 90달러를 재차 하회하기 시작하였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4.5% 아래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를 반영한 것이지만, Fed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완화도 일부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신임 한은총재가 주재한 첫 금통위가 마무리되었다. 예상대로 동결을 유지하면서,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총재 기자회견에 대한 시장의 첫 반응은 대체로 매파적으로 해석하며 장단기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당사는 전반적인 신임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었고, 예상을 크게 벗어나서 매파적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점도표 변화를 반영하여, 금리 인상 시점을 올 7월, 10월, 그리고 내년 2월로 소폭 앞당기나, terminal rate 3.25% 전망은 유지한다. 또한, 향후 미-이란 합의 도출 이후, 점진적인 유가 하락을 반영하여 국내 금리도 완만하게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국 경기 충격은 제한적 수준에 그친 가운데, 핵심 인플레이션으로의 물가 충격 전이도 우려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이란 간 합의 도출 시,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했던 유럽 시장의 catch-up이 예상된다. 또한, 유가 하락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주요국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세와 달러화의 약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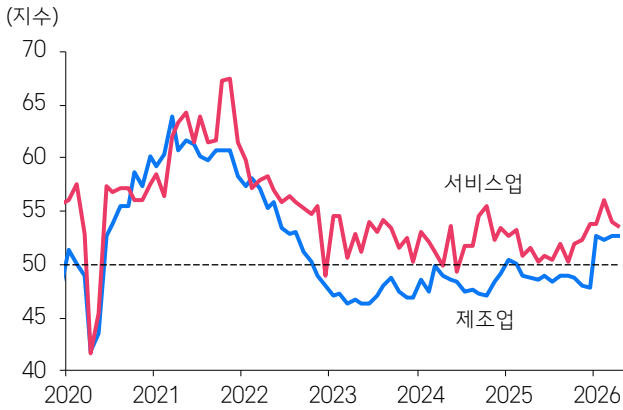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경제 지표							
미국	6월 1일	5월 ISM 제조업 지수	지수	53.2	52.7	상	• 유가 및 금융여건 완화로 전월과 유사할 전망
	6월 2일	4월 JOLTS 구인 건수	천 명	6,890.0	6,866.0	상	
	6월 3일	5월 ADP 고용	천 명	120.0	109.0	상	
		5월 ISM 서비스업 지수	지수	53.7	53.6	상	
	6월 5일	5월 비농업고용	천 명	93.0	115.0	상	• 전월 일시적 상승의 기저효과로 소폭 둔화 전망
		5월 실업률	%	4.3%	4.3%	상	
유로존	6월 2일	5월 CPI	전년 대비	3.3%	3.0%	상	•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지속 전망
중국	5월 31일	5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전년 대비	50.0	50.3	상	• 주요 항구 물동량 감소 및 내수 부진으로 둔화
		5월 국가통계국 비제조업 PMI	전년 대비	49.5	49.4	상	
	6월 1일	5월 RatingDog 제조업 PMI	지수	51.3	52.2	상	
	6월 3일	5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	지수	52.2	52.6	상	
일본	6월 5일	4월 명목 임금 상승률	전년 대비	3.2%	3.1%	상	
한국	6월 1일	5월 수출	전년 대비	50.7%	48.0%	상	• 수출 호조는 반도체 가격 및 물량 상승에 기인
	6월 2일	5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3.0%	2.6%	상	•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의 물가압력은 제한적
		5월 핵심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	2.2%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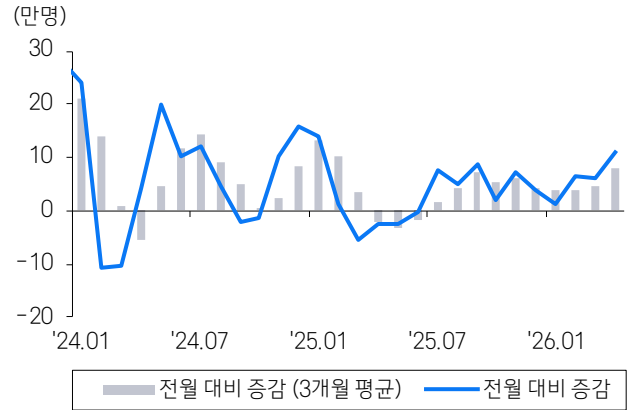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미국 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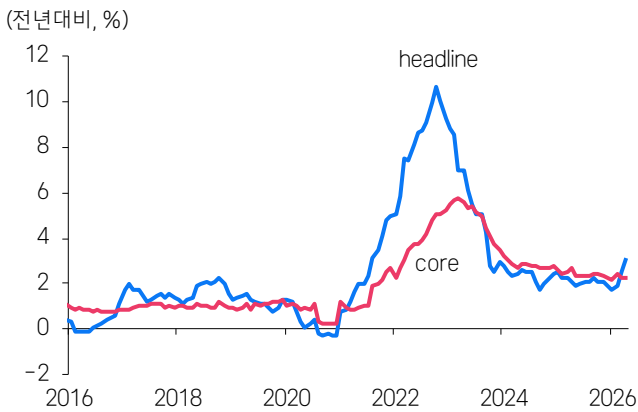
자료: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미국 ADP 민간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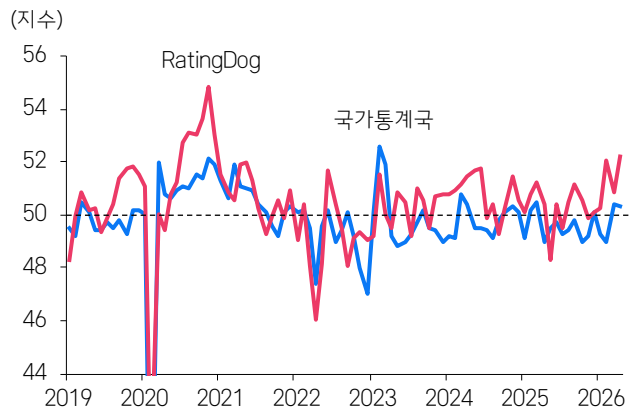
자료: Automatic Data Processing, Inc.

유로존 HI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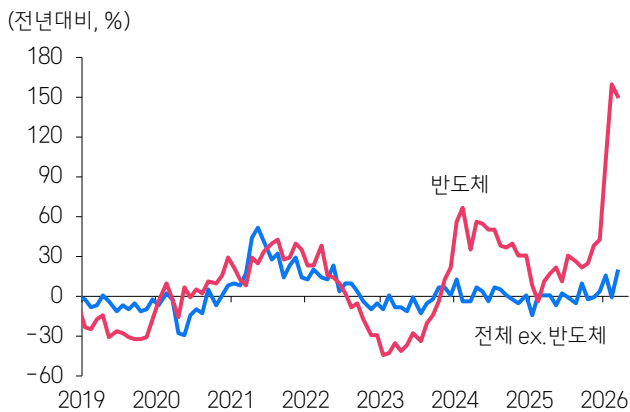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중국 제조업 PMI 추이: 국가통계국 vs. RatingD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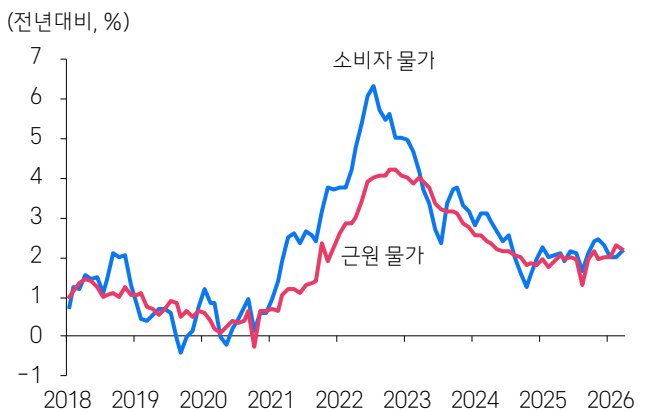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S&P Global

한국 전체 및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삼성증권

한국 소비자물가 추이: headline vs. core



자료: 통계청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4월 PCE 물가지수(28일)가 발표되었다. 4월 headline과 core PCE 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0.4%와 0.2% 상승하면서 전월(각각 0.7%, 0.3%)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월 headline과 core 물가가 각각 3.8%와 3.3% 상승한 가운데, 3Q 이후 관세 효과가 점차 약화되는 점을 감안 시 당사는 미국 핵심 인플레이션이 5~6월 중 3.3% 내외에서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함께 발표된 4월 개인 소비는 전월 대비 0.5%로 양호한 증가 흐름을 유지한 반면, 4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주로 정부 지원금 지급 종료로 농가 사업소득(farm proprietor's income)이 감소한 영향이었으나 일회적 성격의 보조금이고 그 외 민간 부문의 급여는 증가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노동소득의 정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국: 내용 이번 주에는 4월 공업기업 재무지표(27일)가 발표되었다. 4월 공업기업 이익(일정 규모 이상 기준)은 전년 대비 24.7% 증가하며 3월 수준(15.8%)을 상회했다. 업종별로 보면, 비철금속, 화학, 컴퓨터 및 통신 업종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SI 투자 확대가 이익 개선을 주도한 것임을 나타냈다. 반면, 자동차, 의류, 철강 등 업종의 이익은 부진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국유기업이 기저효과 영향으로 44.5%를 기록하면서 증가를 주도했으며, 민영기업은 26.0%, 외자기업은 5.1%를 기록했다. 한편, 4월 공업기업 영업매출은 전년 대비 5.7%, 영업비용은 4.5%를 기록했다.

일본: 이번 주에는 4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29일)이 발표되었다. 4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8%로 3개월 만에 (+) 전환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2.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기계(7.5%, 이하 전년 대비), 전기기계(6.9%), 생산기계(6.2%) 등 설비투자 관련 기계류가 두드러졌으며 자동차 포함 운송장비(4.5%)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유지했다. 반면, 이란 사태 영향으로 석유·석탄 제품이 -10.7%로 전월(-1.4%) 대비 추가 둔화되었으며 철강(-0.8%), 제련금속(-0.1%) 등도 소폭 감소했다.

소매판매의 경우, 4월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2월(-0.2%)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15.4%)가 전월(9.0%)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계·장비(5.5%)와 일반상품(3.3%)도 뚜렷한 (+)를 기록했다. 반면, 연료(-9.1%), 의류·섬유(-1.6%) 등 품목 판매는 부진했다. 한편, 연료 판매가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수요 둔화 영향보다도 정부의 에너지 가격 보조금 정책 효과로 소매 가격이 낮아진 영향으로 판단한다.

한국: 이번 주에는 5월 금통위(28일)가 있었다. 5월 금통위에서는 당사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다만,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수정경제전망에서 ‘26년 성장 전망(2월 2.0% → 5월 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2.2% → 2.7%)을 상향 조정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번 점도표에서는 21개 점 중 19개의 점이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가리키면서 금통위 원 대부분이 6개월 내 인상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송 신임 총재가 “최종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당사는 terminal rate 전망을 3.25%로 유지하며, 점도표를 감안해 올해 7월-10월 두차례 인상 후 내년 1분기(2월)에 추가 1회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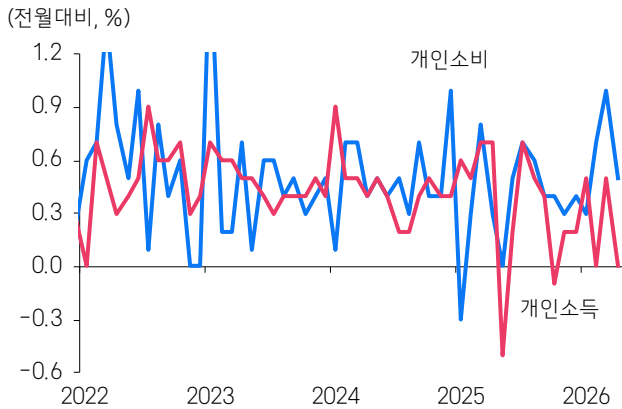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교	
정책 지표								
한국	5월 28일	5월 금통위	-	-	-	-	• 금리 동결. 당사 2회(7, 10월) 인하 전망	
경제 지표								
미국	5월 26일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92.0	93.1	93.8	Above	
	5월 28일	4월 개인소득	전월 대비	0.4%	0.0%	0.5%	Below	
		4월 개인소비	전월 대비	0.5%	0.5%	1.0%	In-line	
		4월 PCE 물가	전월 대비	0.5%	0.4%	0.7%	Below	
		4월 핵심 PCE 물가	전월 대비	0.3%	0.2%	0.3%	Below	
		4월 내구재주문	전월 대비	4.0%	7.9%	1.3%	Above	
		4월 자본재주문	전월 대비	0.4%	-1.1%	3.9%	Below	
		4월 신규주택매매	전월 대비	-3.2%	-6.2%	3.4%	Below	
유로존	5월 28일	5월 경제신뢰지수	지수	93.0	93.5	93.2	Above	
독일	5월 29일	5월 CPI	전월 대비	0.1%	-	0.6%	-	
중국	5월 27일	4월 공업기업 재무지표	전년 대비	-	24.7%	15.8%	-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AI 투자 확대가 견인
일본	5월 29일	5월 도쿄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1.6%	1.4%	1.5%	Below	
		4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4%	1.3%	1.3%	Above	
		4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6%	0.8%	-0.4%	Above	• 기계류 및 운송장비 증가, 석유·석탄 둔화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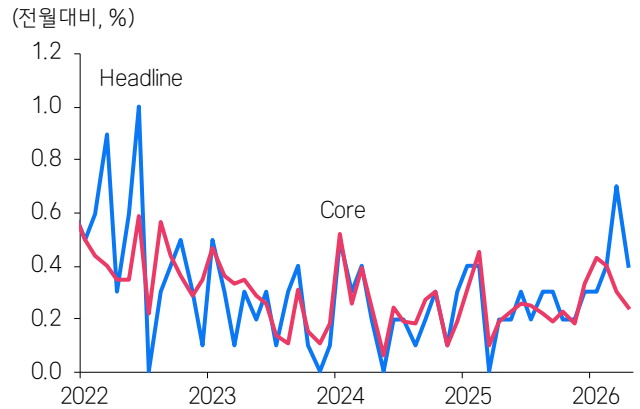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미국 개인소비, 개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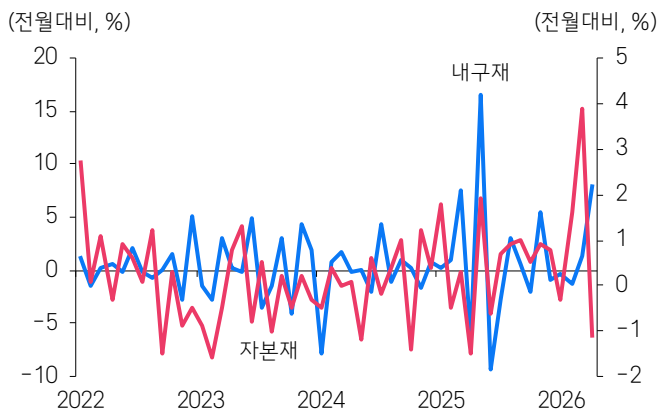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PCE: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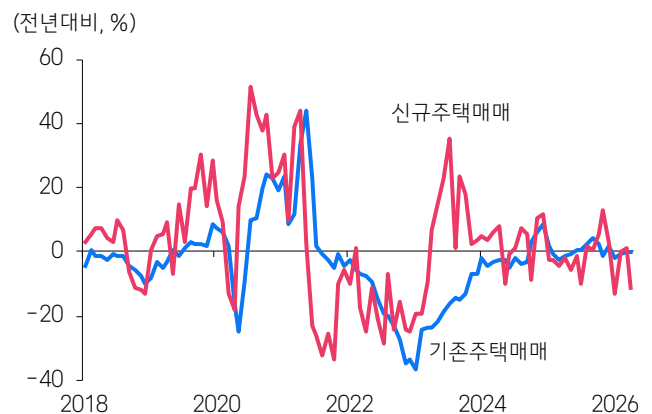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 내구재, 자본재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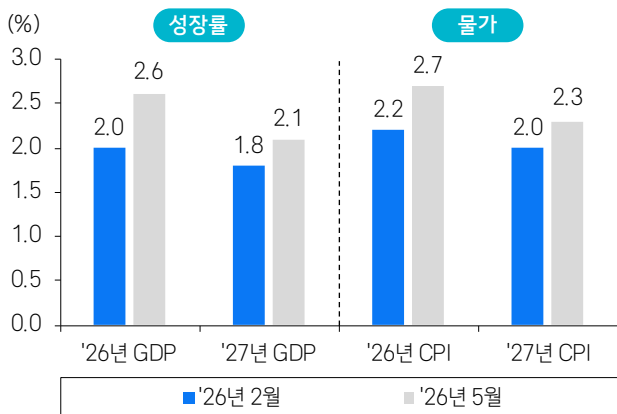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미국 기존주택매매 vs. 신규주택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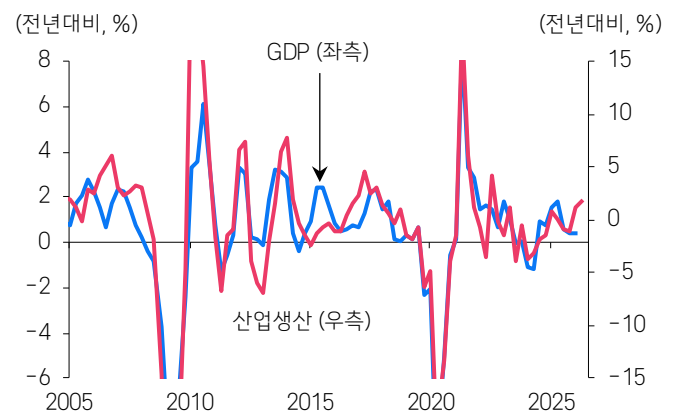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국은행 경제전망 변화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일본 산업생산 및 GDP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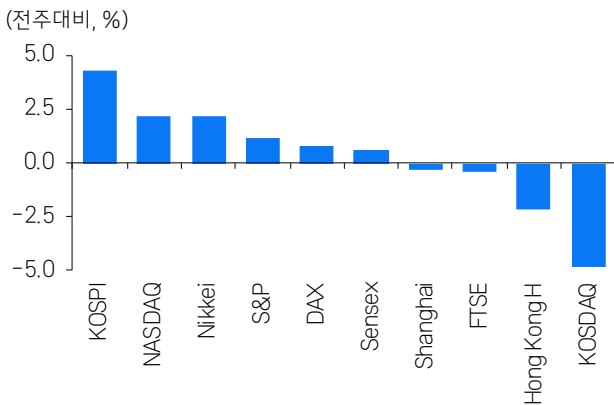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5월 29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승했다. 한국에서는 미국 반도체주 강세와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6.8%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AI 관련 투자 확대 기대가 이어지며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1.2%, 2.2%를 기록했다. 특히 AI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빅테크와의 장기 계약 체결 소식 등이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유럽에서도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경기소비재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유로스톡스50은 0.6% 상승했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99.2에서 99.1로 소폭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달러는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단이 60일간의 휴전 연장 및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으며 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518원에서 1,503원으로 하락하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부각되었다. 5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2.5%로 8회 연속 동결했다. 그러나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하고 수정경제전망에서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및 물가 전망을 큰 폭으로 상향하는 등 다수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확인되면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주 달러 대비 원화가 1.0%, 위안화 0.4%, 유로화 0.3%, 파운드는 보합, 엔화는 약보합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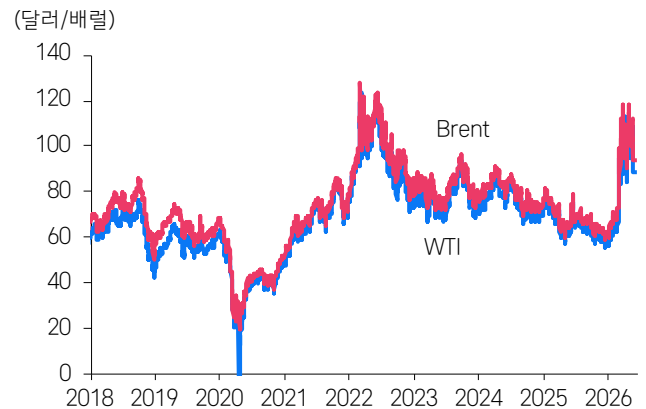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96.6에서 \$88.6으로, 브렌트는 \$103.5에서 \$93.7로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 양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 양해각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된 영향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 대신, 미국은 제재 완화 및 동결된 이란 자금의 해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5월 29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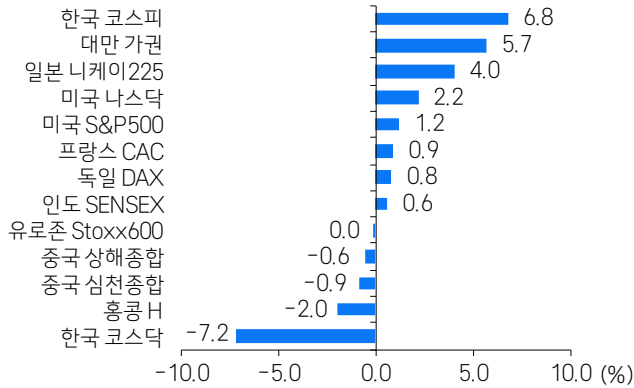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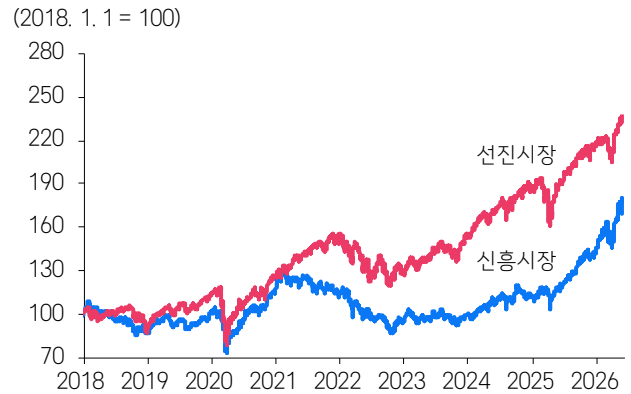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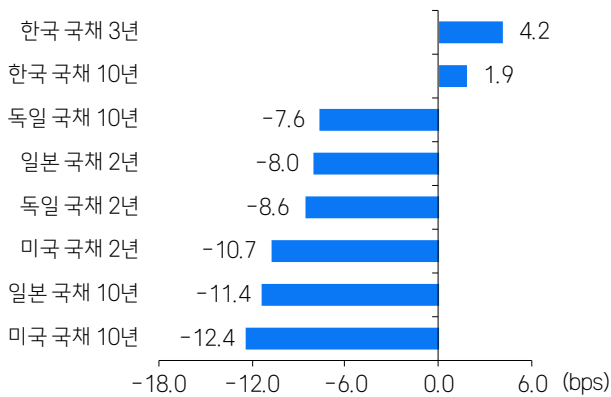
참고: 5월 29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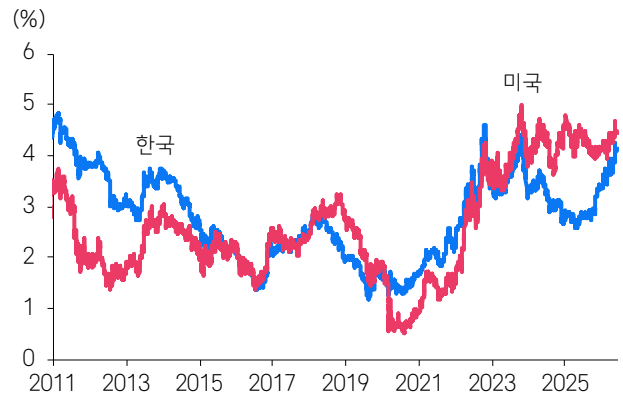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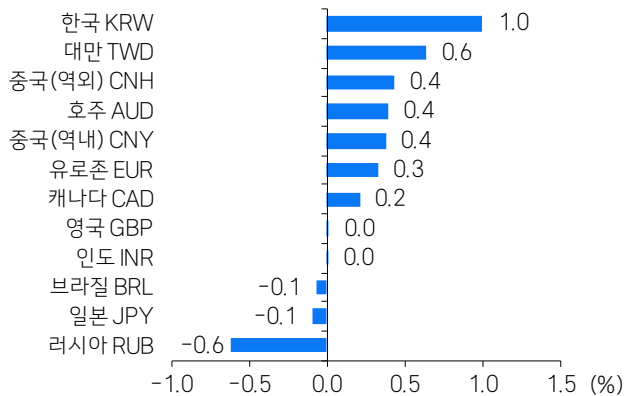
참고: 5월 29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5월 29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변화 내용
				3개월	1년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0	(75)	4월 FOMC 및 파월 의장 기자 회견은 3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당분간 "WaitandSee" 모드를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 현재 FOMC 참여자들 대부분의 강한 컨센서스는 이란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dual mandate의 양방향 리스크, 즉, 물가의 상방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정책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추가 지표들을 확인/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 파월 의장도 통화 정책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
유로존	2.00	2.25	25.06.05	0	(25)	ECB,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으나, ECB 판단은 3월과는 달린 모습. ECB는 물가 상승 압력,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제가 3월에서 제시된 기본 시나리오 궤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및 성장 하방 압력이 당초 ECB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한국	2.50	2.75	25.05.29	0	0	한국은행,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통방문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신현승 총재는 기자회견담회에서 금리 인상 방향을 시사했으나 terminalrate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힘
일본	0.75	0.50	25.12.19	0	25	일본은행,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로 동결. BOJ는 핵심 소비자물가 전망을 '26년과 '27년 모두 2.6%로 상향조정하며, 노동력 부족에 따른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1월에는 각각 2.2%와 2.1%). 아울러,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장기화, AI 수요 둔화, 외환시장 불안정 등을 전망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음. 오후에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총재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hawkish했음
영국	3.75	4.00	25.12.18	0	(50)	BOE,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 중앙은행은 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전망이 불확실한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며, 2%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1.40	1.50	25.05.08	0	0	중국 인민은행은 3월 양회에서 "적절히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또한, 정책 금리 및 기준을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힘. 다만, "사회의 종합적인 용자 비용을 낮추겠다"는 문구를 "...용자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변경
기타 지역						
멕시코	6.50	6.75	26.05.07	(50)	(200)	멕시코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27년 2분기 중 물가 목표치 3%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언급. 이번 결정으로 2년 넘게 지속된 인하 사이클을 종료한다고 밝힘
인도	5.25	5.50	25.12.05	0	(75)	인도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서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성장과 물가 모두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으며, 앞으로 성장, 인플레이션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성 언급
브라질	14.50	14.75	26.04.29	(50)	(25)	브라질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GDP 성장 둔화에 따른 실물경제 부담을 반영해 금리를 인하했으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
튀르키예	37.00	38.00	26.01.22	0	(900)	튀르키예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했다고 언급. 또한 지정학적 위험이 2차 파급 효과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방 위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인도네시아	5.25	4.75	26.05.20	50	(2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상. 이는 '24년 4월 이후 첫 금리 인상이며, 중앙은행 총재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루피하와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임을 밝힘. 또한 금리 인상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26년 성장률 목표치를 4.9%~5.7%로 유지
호주	4.35	4.10	26.05.05	50	50	호주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상.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 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단기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
스웨덴	1.75	2.00	25.10.01	0	(50)	스웨덴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현재 경기 성장세와 물가 모두 전망치를 하회하나, 전쟁으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시,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
스위스	0.00	0.25	25.06.19	0	(25)	스위스 중앙은행,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몇 분기 동안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스위스프랑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
러시아	14.50	15.00	26.04.24	(100)	(650)	러시아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둔화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중앙은행 추산 기준 연율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대외환경과 재정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
뉴질랜드	2.25	2.50	25.11.26	0	(100)	뉴질랜드 중앙은행, 5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통화정책위원회는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의견차가 존재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향후 금리 인상을 신속하고 큰 폭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힘
캐나다	2.25	2.50	25.10.29	0	(50)	캐나다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올해 초 성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과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힘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5월 22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변화율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7,848	7,848	8,048	8,229	8,185	8,392	6.9	25.4	34.4	113.7	208.5	213.4	228.0	99.1
미국 S&P 500	7,473	7,473	7,519	7,520	7,564	7,564	1.2	6.0	10.0	10.4	27.9	43.6	79.9	10.5
일본 NIKKEI 225	63,339	65,158	64,996	64,999	64,693	65,897	4.0	10.0	12.0	31.1	71.5	70.9	111.0	30.9
영국 FTSE	10,466	10,466	10,491	10,505	10,426	10,426	(0.4)	2.1	(4.4)	7.3	19.6	27.4	36.7	5.0
독일 DAX	24,889	25,389	25,185	25,178	25,092	25,092	0.8	4.7	(0.8)	5.3	4.8	35.8	57.3	2.5
중국 상해종합	4,113	4,153	4,145	4,094	4,099	4,083	(0.7)	(0.6)	(1.9)	5.0	21.4	31.2	26.7	2.9
홍콩 H	8,551	8,551	8,577	8,463	8,364	8,389	(1.9)	(4.7)	(5.3)	(8.1)	(2.0)	27.9	34.2	(5.9)
인도 Sensex	75,415	76,489	76,010	75,868	75,868	75,868	0.6	(2.1)	(6.7)	(11.5)	(7.1)	1.8	20.7	(10.9)
인도네시아 JCI	6,162	6,206	6,130	6,130	6,130	6,187	0.4	(12.9)	(24.9)	(27.3)	(13.8)	(13.3)	(7.4)	(28.4)
브라질 iBovespa	176,210	177,816	176,589	175,744	175,063	175,063	(0.7)	(5.2)	(7.3)	10.1	26.4	42.7	58.7	8.7
MSCI World (USD)	4,801	4,819	4,831	4,828	4,846	4,846	0.9	5.2	6.3	10.2	25.5	41.3	71.2	9.4
MSCI EM (USD)	1,686	1,711	1,720	1,739	1,725	1,725	2.3	6.6	7.1	26.2	47.4	60.9	77.5	22.7
채권금리 (%)														
한국 국채 3년	3.73	3.73	3.66	3.72	3.77	3.77	4	24	73	78	143	35	24	82
한국 국채 10년	4.13	4.13	4.08	4.11	4.15	4.15	2	30	70	80	139	61	50	76
미국 국채 2년	4.12	4.12	4.03	4.03	4.02	4.02	(10)	7	64	53	8	(96)	(55)	54
미국 국채 10년	4.56	4.56	4.48	4.48	4.45	4.44	(12)	1	50	42	2	(18)	64	27
일본 국채 10년	2.76	2.70	2.73	2.70	2.70	2.65	(12)	17	53	83	112	156	221	58
독일 국채 10년	3.04	2.95	2.98	2.99	2.96	2.96	(8)	(15)	32	27	45	27	53	11
중국 국채 10년	1.75	1.75	1.75	1.74	1.72	1.71	(4)	(4)	(10)	(12)	(1)	(59)	(100)	(14)
인도 국채 10년	7.09	7.03	6.99	7.00	7.00	7.00	(10)	0	34	49	74	(2)	(3)	41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6.74	6.68	6.71	6.71	6.71	6.71	(3)	(19)	28	39	(13)	(23)	31	64
브라질 국채 10년	14.24	14.09	14.13	14.17	14.21	14.21	(3)	20	66	81	25	233	263	48
JPM EMBI Global	220.8	220.8	221.8	218.5	218.0	218.0	(3)	(4)	(18)	(26)	(85)	(78)	(183)	(13)
장단기 금리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44	0.44	0.45	0.45	0.43	0.42	(2)	(6)	(14)	(10)	(6)	78	118	(27)
일본 국채 10년-2년	1.33	1.29	1.32	1.31	1.34	1.29	(4)	20	41	46	52	59	79	40
독일 국채 10년-2년	0.39	0.41	0.39	0.40	0.40	0.40	1	4	(24)	(26)	(34)	82	85	(33)
중국 국채 10년-2년	0.45	0.45	0.46	0.45	0.46	0.43	(2)	(3)	2	3	21	7	3	(2)
한국 국채 10년-3년	0.40	0.40	0.41	0.39	0.38	0.38	(2)	6	(3)	2	(4)	26	26	(6)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5월 22일	5월 25일	5월 26일	5월 27일	5월 28일	5월 29일	변화율 (%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41.9	41.9	42.5	42.5	42.5	42.5	1	3	7	9	(9)	1	(14)	13
일본 (5년)	16.3	16.4	16.4	16.6	16.6	16.6	0	(0)	1	5	4	3	3	2
독일 (5년)	22.4	22.4	21.9	21.9	21.9	21.9	(0)	(7)	(3)	(1)	(8)	(13)	(19)	(0)
중국 (5년)	4.0	4.0	4.0	4.0	4.0	4.0	0	(1)	0	(1)	(4)	(1)	(6)	0
한국 (5년)	40.6	40.6	39.9	39.6	39.6	39.6	(1)	(4)	(4)	(8)	(11)	(22)	(29)	(4)
인도네시아 (5년)	92.0	92.0	91.0	90.0	90.0	90.0	(2)	1	7	16	11	19	(1)	22
브라질 (5년)	121.9	121.9	119.9	119.9	120.3	120.3	(2)	(3)	(10)	(21)	(41)	(26)	(88)	(18)
멕시코 (5년)	87.0	87.0	87.4	87.9	87.9	87.9	1	(1)	(1)	(10)	(32)	(6)	(26)	(2)
상품가격														
CRB지수	392.7	392.7	388.3	381.2	384.6	384.6	(2.1)	(2.5)	23.0	27.6	32.3	29.2	47.5	28.7
WTI (달러/배럴)	96.6	96.6	93.9	88.7	88.9	87.5	(9.4)	(18.1)	30.6	49.5	43.6	10.5	20.5	52.5
두바이유 (달러/배럴)	103.4	103.4	102.6	102.1	102.5	102.5	(0.8)	(3.0)	49.9	59.1	61.1	22.0	36.5	65.3
LME 구리 (달러/톤)	13,668	13,668	13,624	13,531	13,702	13,702	0.2	5.4	2.7	22.5	43.2	31.0	68.4	10.3
금 (달러/oz)	4,509	4,571	4,508	4,454	4,495	4,497	(0.3)	(1.1)	(14.8)	6.1	35.5	92.3	131.4	4.1
은 (달러/oz)	75.54	78.08	76.91	74.63	75.63	75.48	(0.1)	5.9	(19.5)	33.6	126.5	136.1	225.6	5.3
옥수수 (센트/부셸)	463.3	463.3	457.5	452.5	455.8	455.3	(1.7)	(2.4)	3.8	4.5	1.8	0.0	(24.6)	3.4
소맥 (센트/부셸)	646.3	646.3	635.5	622.5	624.0	621.3	(3.9)	(3.3)	5.1	17.0	16.3	(10.3)	0.9	22.5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518	1,518	1,508	1,499	1,494	1,503	1.0	(1.0)	(4.2)	(2.4)	(8.8)	(9.2)	(11.9)	(4.2)
일본 엔화	159.18	158.91	159.30	159.52	159.24	159.35	(0.1)	0.7	(2.1)	(2.0)	(9.5)	(1.1)	(11.9)	(1.6)
유로화	1.160	1.164	1.163	1.163	1.165	1.164	0.3	(0.3)	(1.5)	0.4	2.4	7.8	8.7	(0.9)
중국 위안화 (역내)	6.796	6.783	6.786	6.779	6.776	6.771	0.4	1.0	1.4	4.5	6.1	7.1	4.4	3.2
중국 위안화 (역외)	6.798	6.784	6.785	6.779	6.773	6.769	0.4	1.2	1.4	4.5	6.2	7.5	4.7	3.1
인도 루피화	95.71	95.24	95.69	95.70	95.70	95.70	0.0	(0.9)	(4.9)	(6.5)	(10.6)	(12.9)	(13.7)	(6.0)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7,709	17,743	17,789	17,789	17,789	17,867	(0.9)	(3.2)	(6.1)	(6.8)	(8.8)	(9.6)	(16.2)	(6.6)
브라질 헤알화	5,037	5,017	5,034	5,059	5,040	5,040	(0.1)	(0.9)	1.7	5.9	12.4	3.2	(0.4)	8.6
달러 인덱스	99.24	99.24	99.17	99.21	99.02	99.07	(0.2)	0.1	1.5	(0.4)	(0.2)	(5.8)	(4.9)	0.8
아시아 달러 인덱스	91.9	92.1	92.1	92.2	92.2	92.2	0.4	0.2	(1.2)	0.9	(0.3)	1.9	(0.6)	(0.0)
JPM 이머징 통화지수	47.43	47.60	47.57	47.43	47.64	47.64	0.4	1.2	(0.0)	2.8	4.3	1.8	(4.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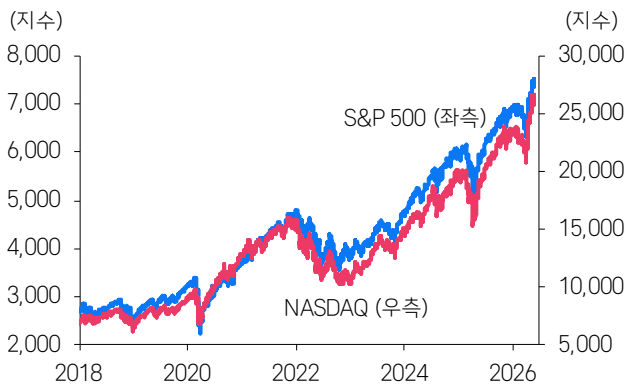
참고: 5월 29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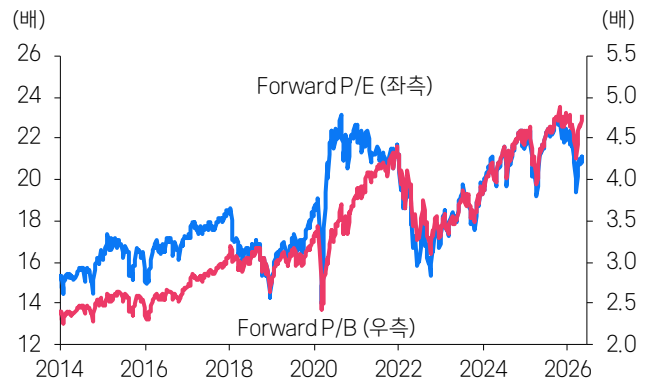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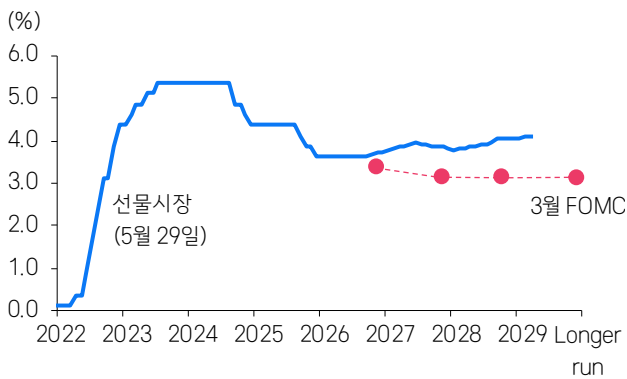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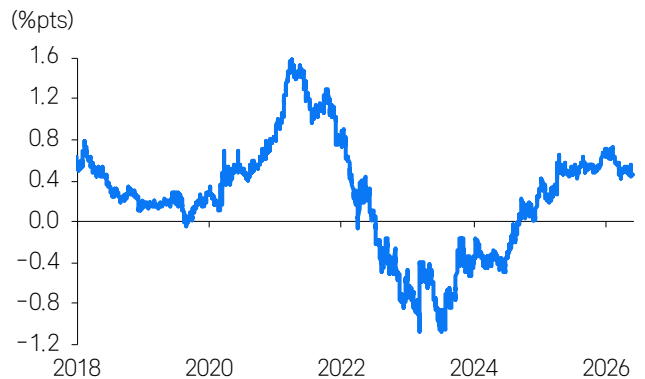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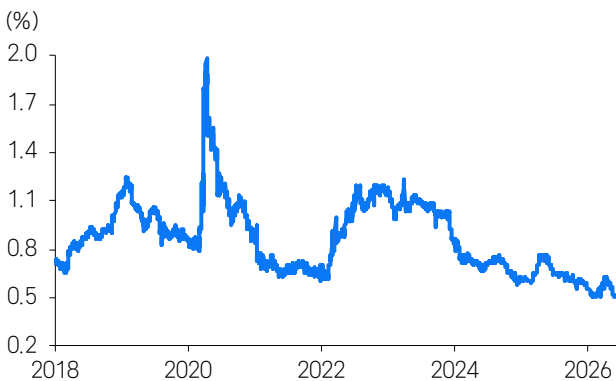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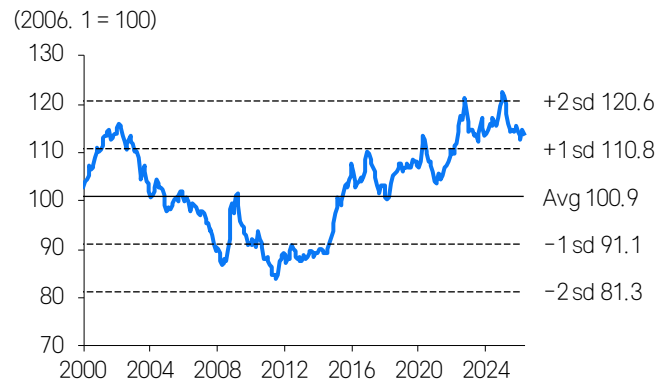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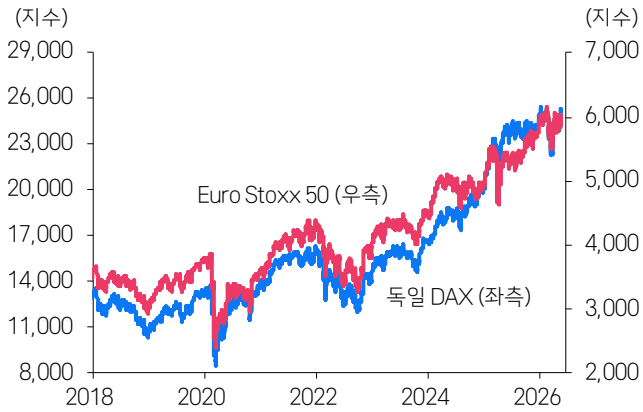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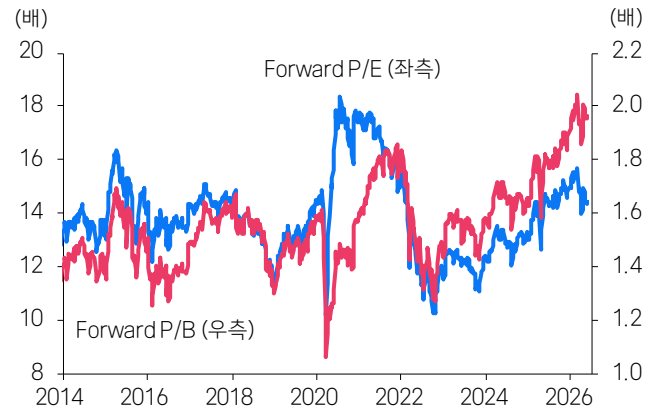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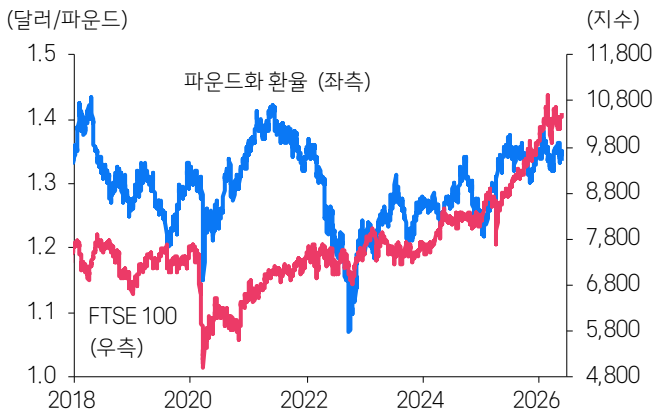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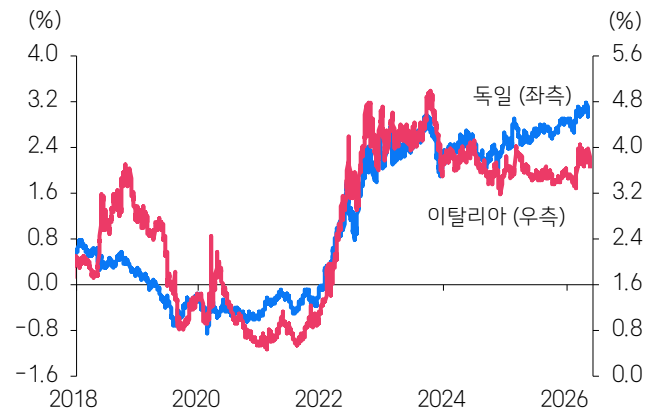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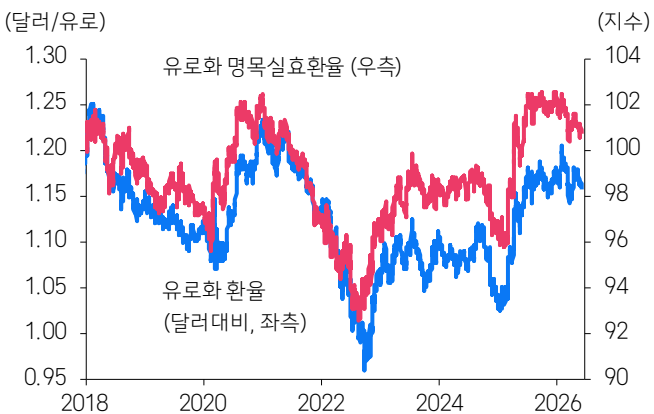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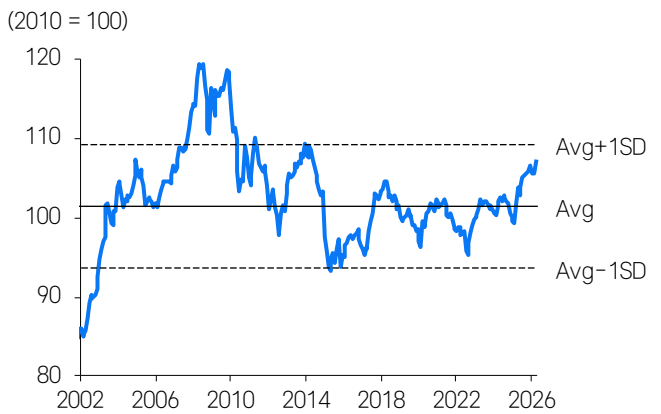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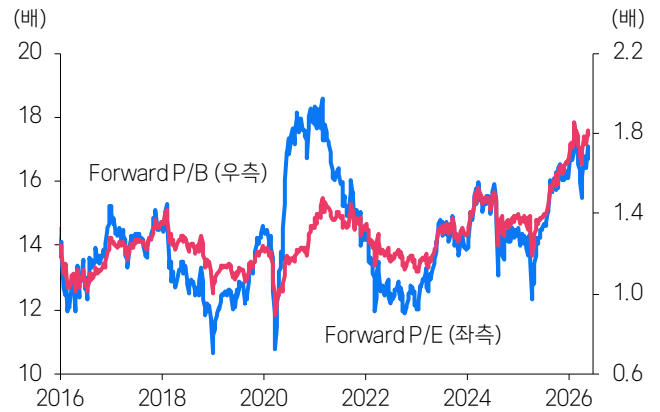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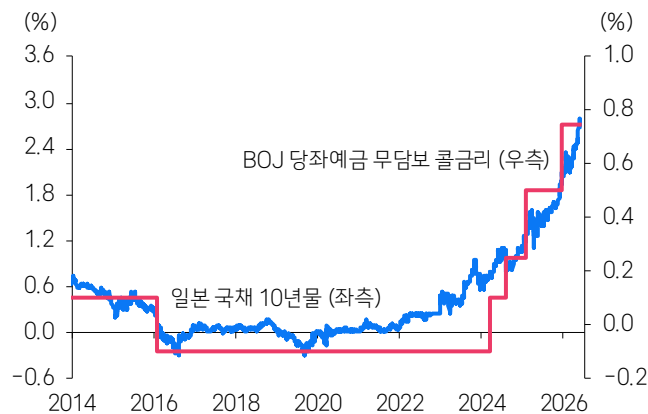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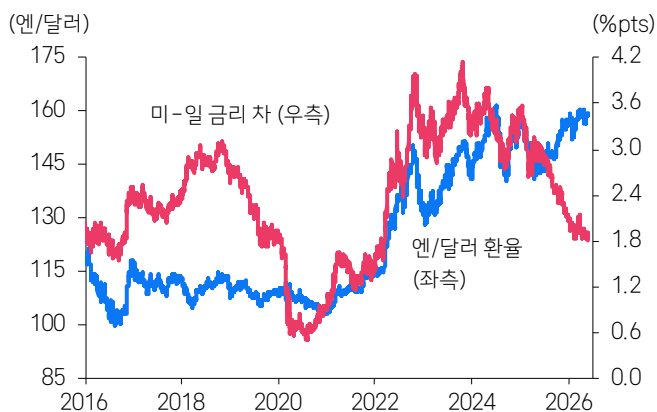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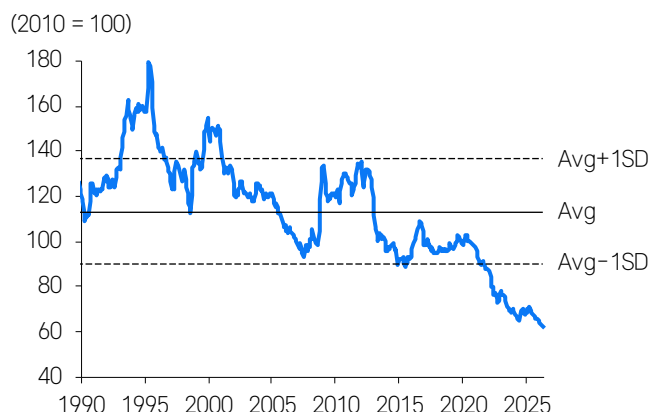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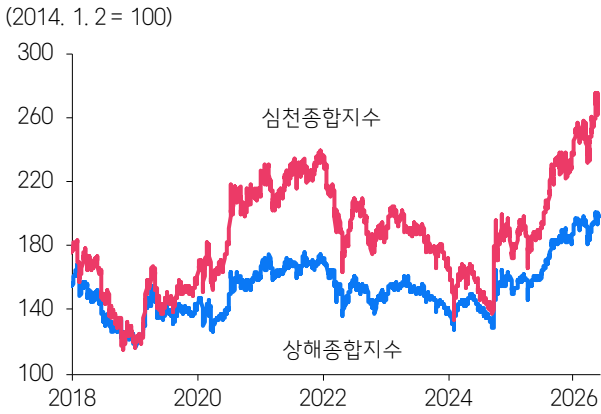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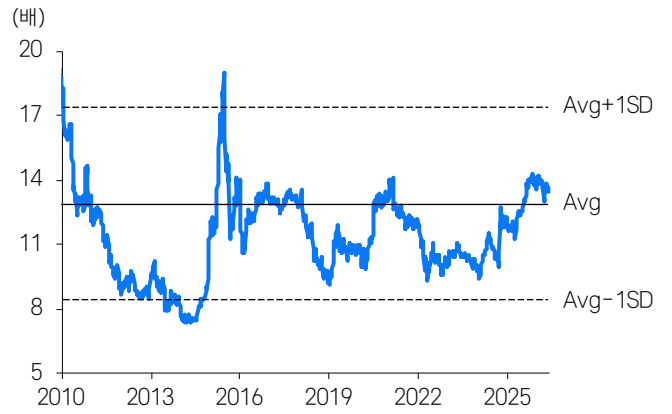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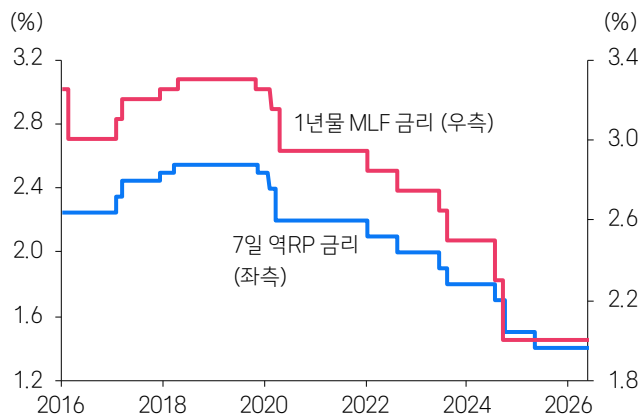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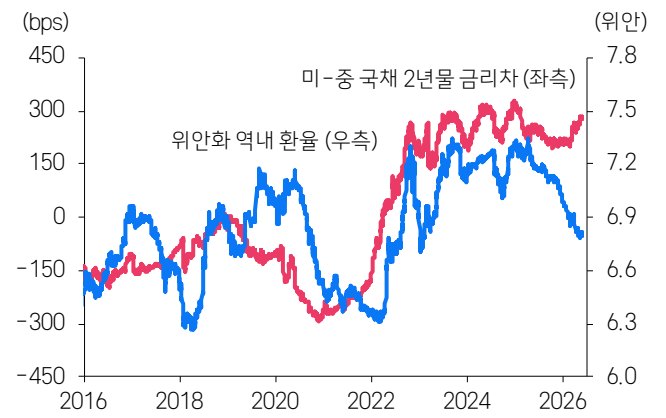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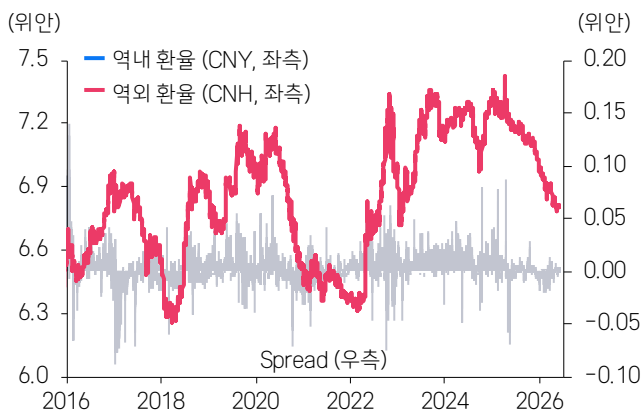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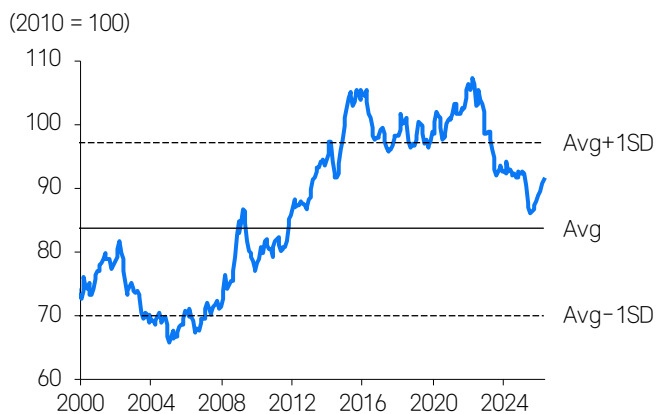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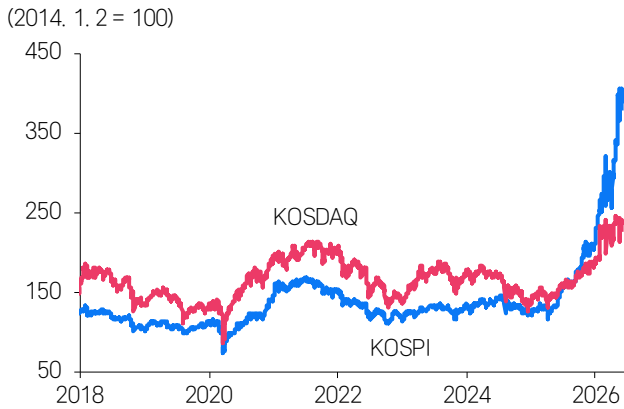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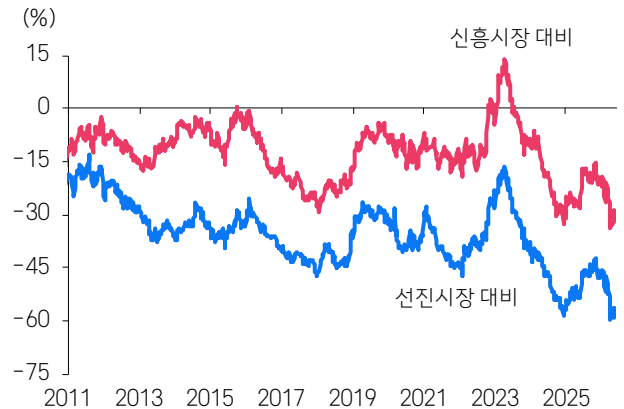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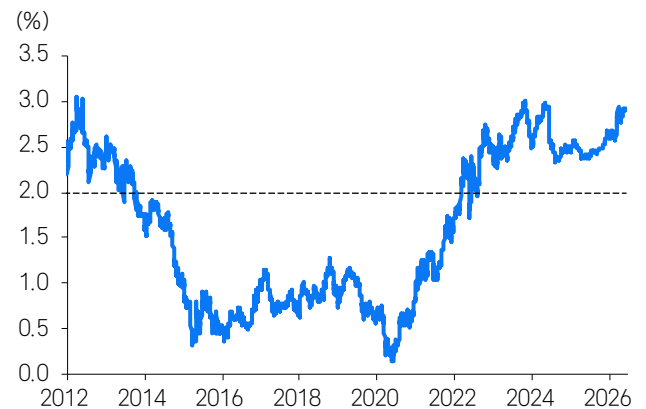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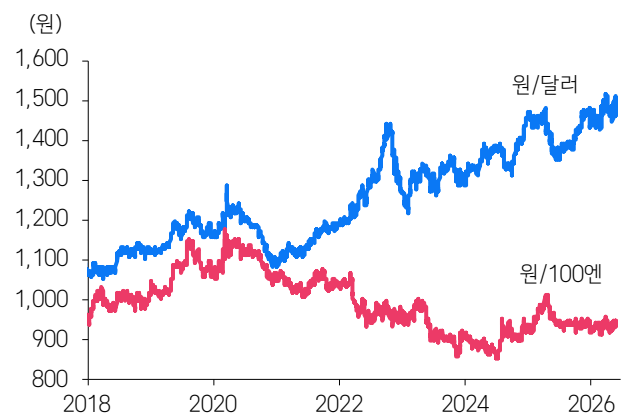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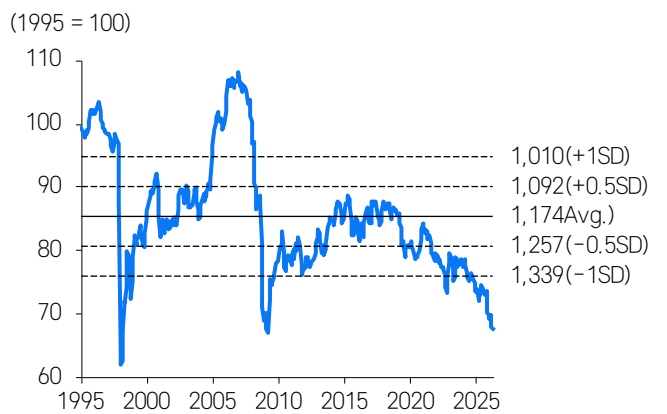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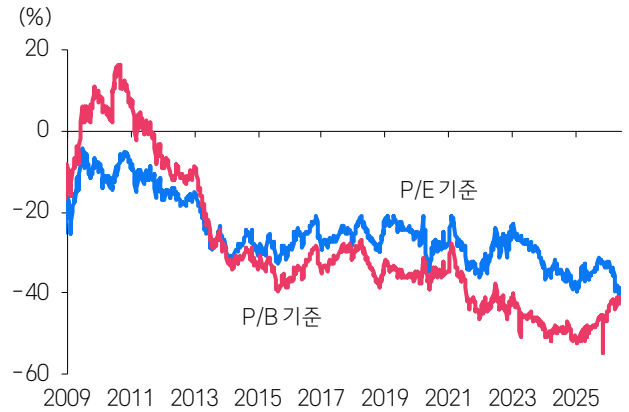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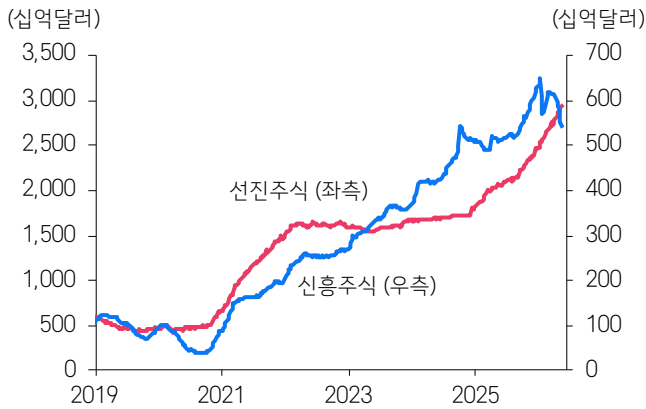
참고: MSCI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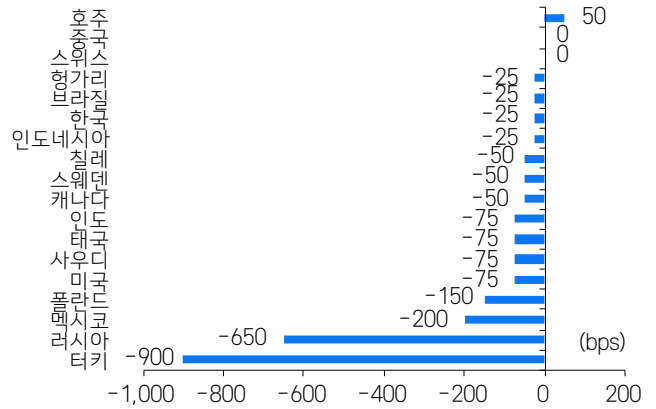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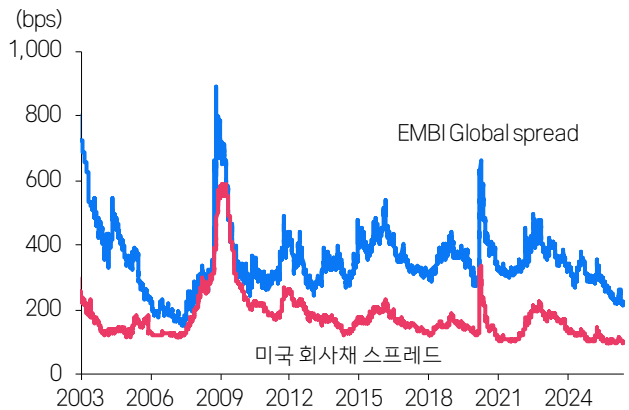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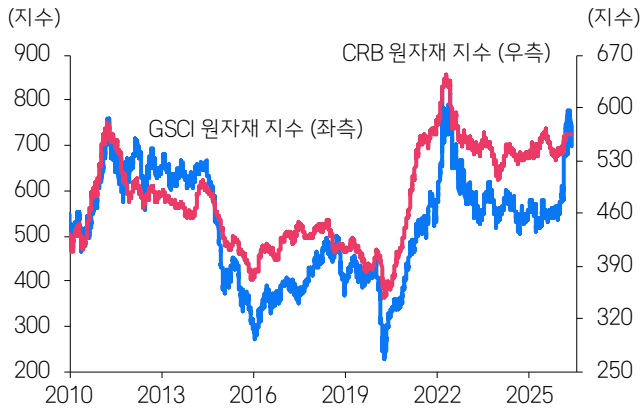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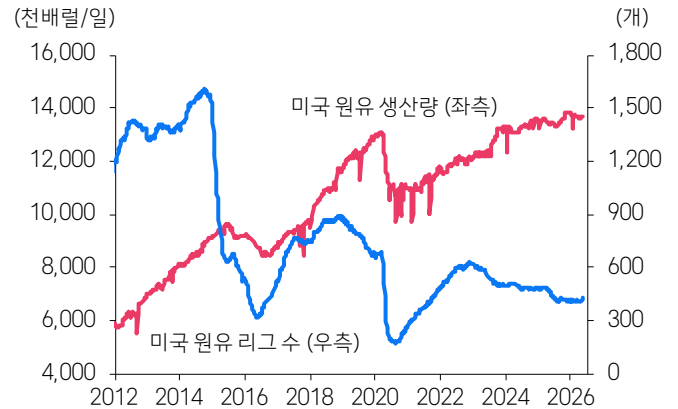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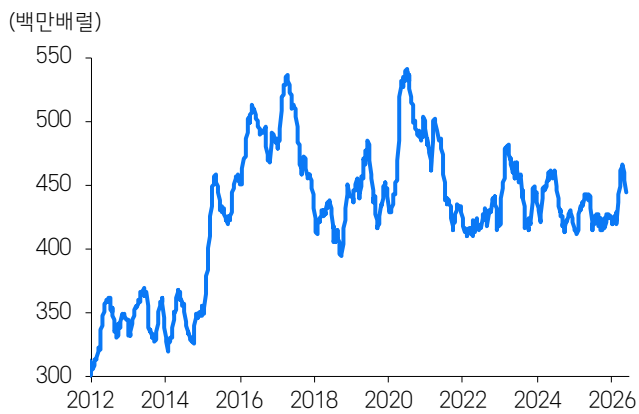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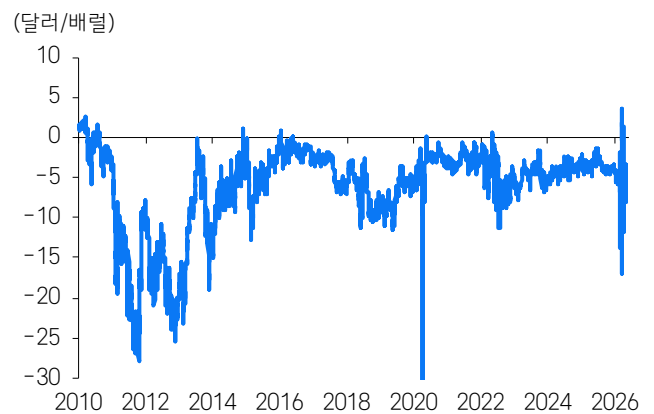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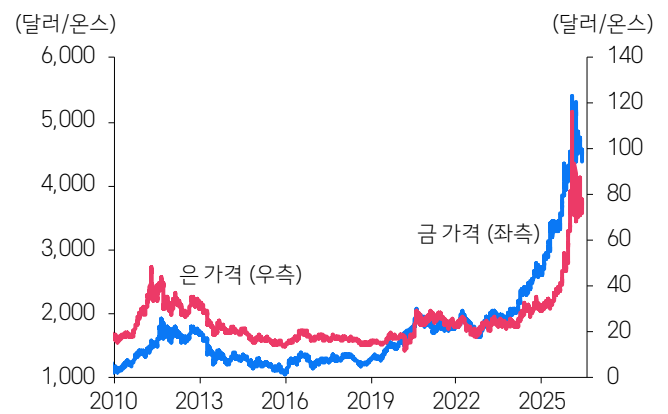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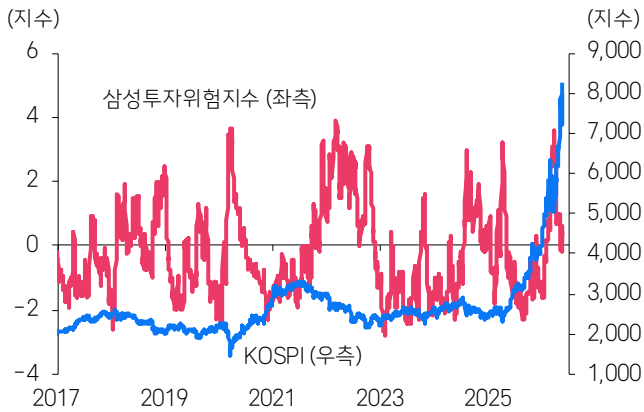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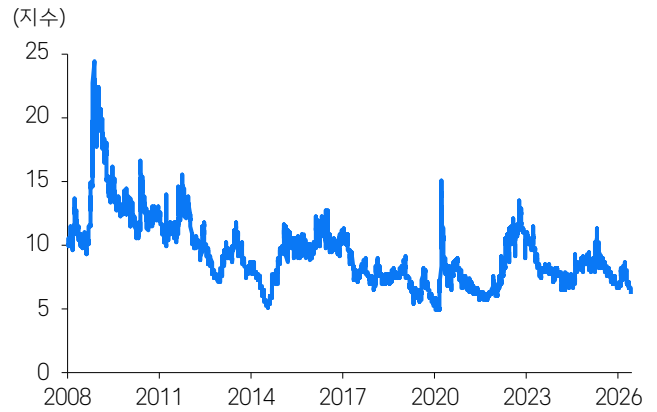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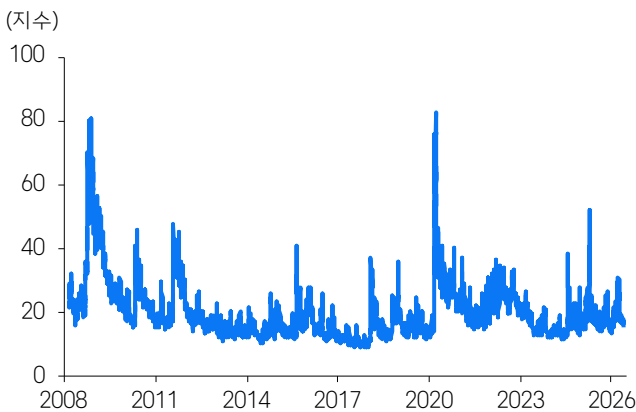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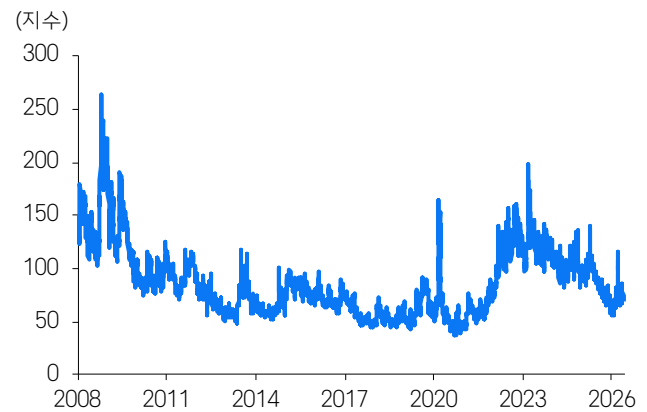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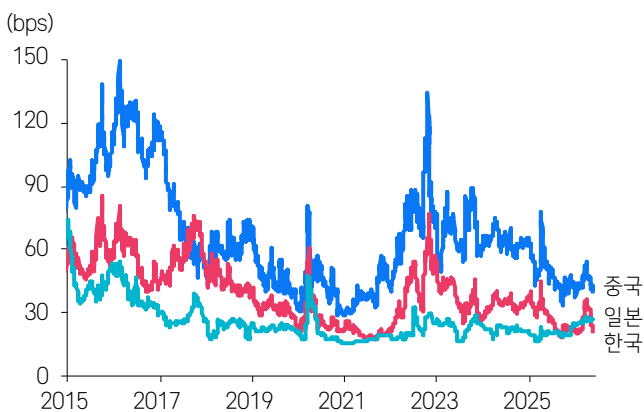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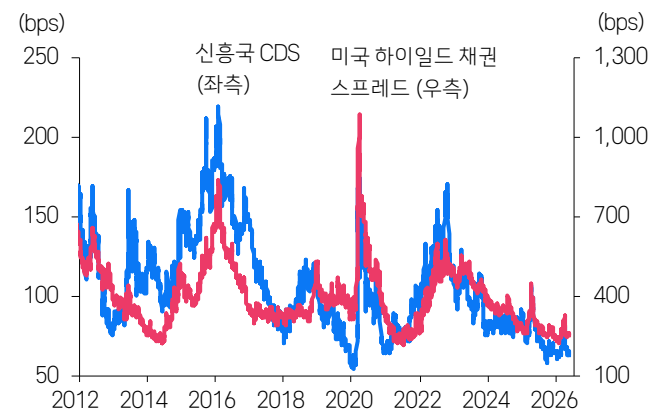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